

---

**[성명]아웅산 수지 여사에 대한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가택연금 즉각 해제를 촉구한다.**

---

2008년 10월 24일 오후 2:43

민중참여민중시대

## 새사회연대

Human Rights Solidarity for New Society

110-550 서울시 종로구 송인동 316-2 금강빌딩 4층 | 전화 02-2235-0062 | 전송 02-2236-0062

이메일 [nsociety@naver.com](mailto:nsociety@naver.com) | 홈페이지 <http://nsociety.org>

---

<새사회연대 성명>보기

**아웅산 수지 여사에 대한 불법적이고 비인도적 가택연금 즉각 해제를 촉구한다**

- 한국 정부는 아웅산 수지 등 버마의 정치 수감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라 -

버마 민주화운동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 여사의 가택연금이 오늘로 꼭 6년째가 된다. 지난 5월 27일 버마 군부는 또다시 가택연금 연장을 결정하여 지금까지 연속 6회째 가택연금을 결정했다.

버마에서 법률상 정치적 구금은 최장 6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버마 군부는 바로 오늘 까지도 아웅산 수지 여사 가택연금과 관련한 공식적인 발표가 없다. 그간 UN(국제연합) 과 아세안 국가, 국제NGO 등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모르쇠로 일관하며 또다시 연장할 가능성으로 우려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운동 탄압을 목적으로 아웅산 수지 여사에 가해지고 있는 가택연금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매우 비인도적인 처사로 즉각 해제되어야 한다.

6년간의 가택연금은 그 자체로 반인권적인 구금이다. 세계인권선언 제9조에는 따르면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구금을 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와 제9조에도 누구도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하며, 자의적인 체포 또는 억류를 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인 올해도 버마에서는 정치범들에게 자의적인 구금과 형벌이 계속되고 있고 이를 이용해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9월 샤프란 항쟁 이후 정치범들에 대한 군부의 탄압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지만 기본적인 통계 파악조차 어려울 정도로 버마 사회는 철저히 통제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한국은 민주화를 성공시켜온 경험과 유엔 사무총장 배출국, 유엔 인권이사국이라는 위상에 따라 동아시아 영내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을 지원하고 영내의 평화가 정착되도록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한국 정부는 즉시 아웅산 수지 여사 등 정치수감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0월 24일

새사회연대

(대표 이창수)